

여름 막바지 교법사들이 권하는 '읽을 만한 불서'



여름이 막바지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여행이나 놀이 등으로 일관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때다. 불교종합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고 있는 교법사들을 통해 심심함에도 도움이 될만한 불서를 추천 받아 소개한다.

교법사들이 추천한 불서들은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부처님 말씀들이 주종을 이룬다. <우리도 부처님같이>(불일 권, 김재영 지음, 값 2천5백원), <서두를 때 서두르면 느릴 때 얼마든지 느려도 좋다>(시공사 권, 유동호 지음, 값 6천원), <운하의 비밀>(장경각 권, 값 6천5백원), <인간부터>(박수일 지음, 값 8천원), <자기를 바로보십시오>(장경각 권, 성철 지음, 8천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몇몇 교법사들은 민족사의 작은 경전시리즈처럼 불법 세계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경전류들도 권한다. 이러한 불서를 선별한 교법사들은 학생들에게 다소 어렵지만 정중하다 보면 자아를 깨워 줄 수 있는 사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추천의의를 설명했다.

사찰관련 불서들도 적지 않다. <명찰순례 1·2·3>(대원사 권, 최완수 지음, 값 8천5백원), <갈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해들누리 권, 정찬주 지음, 값 8천원)를 비롯 사찰문화 연구원의 전통사찰총서시리즈 등이 있다. 이 불서들은 청소년들에게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교법사들은 이권류의 책들은 처음부터 읽지 말라고 조언한다. 인연 닿는 사람이나 관심 있는 부분만을 골라 읽으면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교법사들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법우사 권, 값 6천원), 광식의 <한국불교 100년>(민족사, 5천8백원), 프레데릭 켄즈의 <히말라야에서 만난 성자>(황금가지 권, 값 9천원), 현각 스님의 <만경-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1·2>(열림원 권, 값 7천원) 등을 꼽았다.

김중근 기자

'불교는 무엇인가' 공금증 풀린다

'쉽게 깊이 읽는 불교입문' 주민황 옮김

스리랑카 나라다 스님의 역작 '불교 본질' 이해 쉽게 소개



부처님 일대기나 불교의 기초교리를 한번 정도 읽어보지 않은 불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큰 대수인 양 가볍게 여기는 불자들도 만만치 않다. 불자들의 인식에 이렇다보니 '부처님은 누구인가', '불교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은 몇몇 불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의외로 폭이 크다는 것이 스님들의 증언이다. 부처님의 사상과 불법을 일별한 <쉽게 깊이 읽는 불교입문>(숨)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나에게 부처님 일대기나 기초교리를 필요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은 곱씹어 볼 만하다. 부처님의 일생에서부터 불교의 근본진리, 그리고 주요 경전까지 깊이 있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자들이 불교의 사상과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펴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불교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불교에 대해 공부했지만 확실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불교의 참 의미를 일깨워 주는데 부족함이 없다.

또한 불교의 개요를 명료하게 다루고 있어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교본으로 삼을 만하다.

이 책은 우선 부처님의 일대기를 간략히 살피면서 그 특징적인 사건들을 적고 있다. 불교 가르침의 근원인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위대한 성자로서 부처님이 가슴속에서 각인될 것이다. 업과 운회, 사성제 등의 핵심교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았다. 뿐만 아니

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행운경>, <자비경> 등 짧은 경전도 실려 있어, 불교의 가르침이 실제형식을 맛볼 수 있다.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뇌했던 인간적인 모습과 그가 깨우쳤던 불법의 정수, 그리고 경전들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적고 있는 점은 돋보이는 미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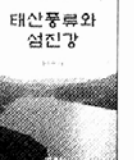
글쓴이는 스리랑카의 고승이자 세계적인 포교사 나라다 스님. 그가 일생을 바쳐 집필한 역작을 빠알리를 공부한 주민황(동국대 인도철학) 강사가 옮겼다. 나라다 스님은 빠알리 경전을 기본으로 이 책을 저술했기 때문에 빠알리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에게 낯설은

단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낱바(니르바나), 까마(까르마), 담마(다르마) 등이 바로 그것. 하지만 불교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이런 빠알리나 불교용어를 접어두고 읽더라도 불교의 본질 이해를 방해하지 않는다. 옮긴이가 빠알리어를 쓴 것은 사실증명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불교가 초기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당시의 언어인 빠알리를 접하면서 읽는다면, 불교가 역사적인 사실로서 더욱 실감나게 다가 올 것이다. 값 8천9백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nia.com)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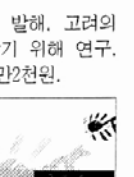
▲사랑과 비람의 시(현호 지음, 정화사)= 슬러시인 현호 스님의 6번째 시집. 발심부터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여정이 녹아 있다. '생명의 길', '행복의 문', '기다림', '깨어나라' 등 60여 편의 시가 수록된 이 시집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간적 갈애를 묘사하고, 그 속에서 원초적 고뇌를 담고 다시 태어나는 진실한 삶의 길을 잔잔하게 보여 주고 있다. 값 4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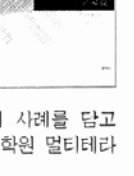
▲태산종류와 삼진강(송수권 지음, 토우)= 소울·지용 문학상을 수상한 송수권 시인의 풍류문과 답사기. 삼진강 발원지에서 530여리 흘러 흘러 남해에 이르는 길을 따라 풍류의 원류와 장강 속에 남은 역사 흔적들을 찾아낸다. 풍류의 계보와 남도의 강줄기를 모작시켜 실제로 강물을 따라가며 풍류정신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한 이 책은, 태산종류와 삼진강, 인방의 정인 모악산 금강사를 찾아가, 동학혁명의 전승지를 찾아서 등 모두 11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계산종류와 영산강>, <천관종류와 탐진강>도 출간할 계획이다. 값 9천8백원.



▲환단고기 1(재현 역음, 바로보인)= 소울·지용 문학상 수상작 중의 '삼성기전' 하권. 이암의 '단군세기', 범정의 '부부여기', 이백의 '태백일사' 등 다섯권으로 이루어진 <환단고기>가 새롭게 출간된다. 이 책은 그 첫 번째 권으로 삼신일체사상을 증명하려고 있다. 2권은 태초부터 단군조선에 이르는 역사를, 3권은 북부여부터 고구려, 발해, 고려의 역사를, 4권은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연구, 규명해 놓은 글들을 수록할 예정이다. 값 1만2천원.



▲직장인을 위한 그림치료(장성철 지음, 북하우스)= 동양의 오행사상에 근거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그림 치료책. '동양인의 체질에 맞는 멀티테라피 새 그림치료 두 번째 권으로 감기, 관절염, 소화불량, 두통 등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을 위한 색채치료법 및 효과와 자가치료요법(도형방식 치료법·선을 이용한 체조법), 그리고 그림치료 실제 사례를 담고 있다. 글쓴이는 장성철 교수(중앙대 예술대학원 멀티테라피화학회장). 값 1만1천원.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김형호 지음, 창계)= 하이데거의 철학과 불교사상에 대해 비교철학적으로 접근. 전기 하이데거는 유학적으로, 후기 하이데거는 화엄학과 선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값 1만1천원.

▲우리 나라 다시 본다(김덕영 지음, 창작시대)= 사회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체제를 마련하지 못해 멸망한 고구려, 대외 정세에 대한 폐쇄성 때문에 민족의 길을 걸은 백제... 역대 왕조 흥망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값 9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야문
2	법구경(작은경전1)	지 현	민족사
3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라마	문이당
4	영가천도	우 톨	표립
5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리
6	지대방 이야기	송광사경원	법공양
7	5만6천 명상체결기	김 남 선	불광
8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9	부처님 말씀	성 열	현암사
10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라 한다	가 바 르	재의나무

도서 안내: (02)737-0695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라 한다'

산문과 시로 만나는 인도의 성자 가비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배치는 하층민으로 살았던 인도의 성자 가비르(1440~1518). 그의 노래는 지금도 수행자나 인력거꾼, 그리고 농부나 상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다.

가비르의 시와 산문 101편을 엮은 <물 속의 물고기가 목마라 한다>(지혜의 나무)가 우리말로 출간됐다. 이 시편들은 단순하게 읽히면서도 '삶이란 이것이다'고 각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지고한 영혼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창조되는가,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가비르는 이 책에서 답하고 있다. "진리는 자기 속에 잘 숨겨져 있으므로 자신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결코 찾을 수 없다고."

이 책의 또 다른 가치는 서정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도의 명상적인 자연을 묘사해 아름다우며 그 안에 깊은 종교와 철학성이 함축돼 있다. 즉 가비르의 삶과 노래는 인도의 자연종교와 종교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표현들이다. 그 초월적인 세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시와 산문들은 인도의 경전인 베다, 우파니샤드 등의 여러 경전을 암습시켜 표현한 것들이다. 그의 아름답고 초월적인 노래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현대인들의 지식과 감성을 고루 살릴 것 같다. 값 6천5백원. 김중근 기자

이 책의 또 다른 가치는 서정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도의 명상적인 자연을 묘사해 아름다우며 그 안에 깊은 종교와 철학성이 함축돼 있다. 즉 가비르의 삶과 노래는 인도의 자연종교와 종교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표현들이다. 그 초월적인 세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시와 산문들은 인도의 경전인 베다, 우파니샤드 등의 여러 경전을 암습시켜 표현한 것들이다. 그의 아름답고 초월적인 노래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현대인들의 지식과 감성을 고루 살릴 것 같다. 값 6천5백원. 김중근 기자

'부처님이 들려주는 호이아기'

불교학자 7명 효사상 집중조명

"불교의 효 윤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한다는 보편적 지은(知恩)·보은(報恩)의 사상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상·하 종속의 수직적 윤리가 아니라 호혜평등의 수평적 윤리이며,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윤리이다."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학)는 '현대사회의 불교의 효사상'을 통해 이렇게 정의한다.

신간 <부처님이 들려주는 호이아기>(조계종 출판사)는 월운(동국대 역경원장) 스님 등 동국대학교에서 강의와 역경에 참여하고 있는 7명의 학자들이 '부모은중경'을 중심으로 불교의 효사상을 조명해낸 책이다.

이 책에는 월운 스님의 '부모은중경 강화', 신성현 연구교수의 '불교경전에 나타난 효', 김상현 교수의 '삼국유사' 효선편의 불교적 의미, 김상환(고려대 강사) 역경위원의 '성덕산 관음사 연기실화', 김용표 교수의 '불교적 가정교육의 방향' 등 7편이 수록됐다. 값 6천원.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nia.com)

혜경 스님 산문집 '약간 삐딱하게 사는 것도 바로 사는 것이다'



혜경 스님(제주 법장사 주지)이 산문집 <약간 삐딱하게 사는 것도 바로 사는 것이다>(하남)를 내놓았다. 언뜻 보면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 제목의 책. 하지만 이 책에는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배껴져 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은 때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잦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란 비합리적인 것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올바르게'만을 강요받는다. 그런 모범답안을 견디지 못하고 뿔뿔이 나가는 경우가 탈

선이다. 이 책은 글쓴이가 산문 안에서, 또는 산문 밖에서 '삐딱하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흠여머니 슬하에서 착하게 자라다 건달 청년이 불쌍해 그와 동거했지만 실패한 한 여대생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글쓴이는 만약 그 여학생이 친구도 많이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면 대처방법은 분명히 달랐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이 책에서는 우리가 소홀히 지나치는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문제들이 담담하게 펼쳐지고 있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설기문 지음 / 값 8,500원 •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전생가기 참 쉽다

설기문
동대교수 · 미국 공인 최면 전생 치료사

경복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미국 인터내셔널 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객원 교수 역임, KBS TV <미스터리 추적>을 포함한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

• 전생 유도 테이프에 보호령이 설치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보, 영풍, 을지, 서울, 영광, 동보서적 베스트셀러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방해했다

지금의 처지가 다음과 같다면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해 왔다.

- 평생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다면 세상은 너까지 살아 살아남으려면 고생해야 해.
- 이제껏 제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었다면 난안 돼, 내애겐 문제가 많아.
- 만나는 사람마다 좋지 않게 헤어졌다면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야 믿을 수 없어.
- 사귀는 남자(여자)마다 어느 선 이상 친해지지 못했다면 사랑은 위험해, 이 사람도 결국 나에게 상처만 남길 거야.

생각은 보이지 않는 씨앗. 그렇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나와 세상을 뿌리부터 바꾸고 싶다면 나,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씨앗은 때와 조건을 만나면 싹튼다 마른이니까.

세계 26개국 베스트셀러. 영어책만 300만 부 판매!

진짜 그렇게 된다

삭터 거웨인 박윤정 옮김
값 6,900원

전생을 알고 나면 → • 몸과 마음, 대인 관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풀린다. • 세상이 전과 다르게 보인다. 02)738-0931

도산

설기문 지음 / 값 8,500원 •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설기문
동대교수 · 미국 공인 최면 전생 치료사

경복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미국 인터내셔널 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객원 교수 역임, KBS TV <미스터리 추적>을 포함한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

• 전생 유도 테이프에 보호령이 설치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보, 영풍, 을지, 서울, 영광, 동보서적 베스트셀러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방해했다

지금의 처지가 다음과 같다면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해 왔다.

- 평생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다면 세상은 너까지 살아 살아남으려면 고생해야 해.
- 이제껏 제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었다면 난안 돼, 내애겐 문제가 많아.
- 만나는 사람마다 좋지 않게 헤어졌다면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야 믿을 수 없어.
- 사귀는 남자(여자)마다 어느 선 이상 친해지지 못했다면 사랑은 위험해, 이 사람도 결국 나에게 상처만 남길 거야.

생각은 보이지 않는 씨앗. 그렇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나와 세상을 뿌리부터 바꾸고 싶다면 나,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씨앗은 때와 조건을 만나면 싹튼다 마른이니까.

세계 26개국 베스트셀러. 영어책만 300만 부 판매!

진짜 그렇게 된다

삭터 거웨인 박윤정 옮김
값 6,900원

설기문 지음 / 값 8,500원 •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전생가기 참 쉽다

설기문
동대교수 · 미국 공인 최면 전생 치료사

경복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미국 인터내셔널 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객원 교수 역임, KBS TV <미스터리 추적>을 포함한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

• 전생 유도 테이프에 보호령이 설치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